

■ 선진농업 현장 ⑥ 포천사과 영농조합 조합장 이재한 ■

왜성사과 포천기후에 적합해 최상품질 보증

사과재배법 학습 및 연구활동으로 당도높은 사과 생산



포천 북부 지역은 사과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다. 사과재배 농가현황을 보면, 관인면 20농가, 영북면 30농가, 일동면 6농가, 영중면 10농가 등이다. 포천과수협 의회가 포천사과영농조합 법인으로 탄생하였으며 현재 60여명의 법인회원이 사과농사를 짓고 있다.

포천사과 영농조합 이재한(48·사진) 조합장은 영북면 자일리 880-1 영농농산 과수원에서 만났다.

이 조합장은 경기도맞춤농정정책에 따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8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도에 8ha, 2005년도에 16ha, 2006년도에 20ha의 신규과수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농농산은 기계화된 과수원의 모델이다. 사과나무 사이를 넓게 하여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과수원을 조성했고 이 길을 따라 농기계가 마음대로 드나들며 농약주기, 풀베기와 과일따기 등의 작업을 실시한다.

농약을 적게 주기 위해 교미교란기를 1ha당 1천개를 달아 수컷들이 암컷을 찾지 못하도록 교란



포천사과영농조합 이재한 조합장이 운영하고 있는 영농농산 과수원에서 자라고 있는 포천 왜성사과.

시키는 작용을 하게 하여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교미교란기는 1개당 880원으로 고가이며 구입비의 80%를 포천시가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교미교란기 사용으로 수확기까지 농약살포 15회가 7회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 조합장은 지난 81년부터 이곳에서 사과를 재배했으며 부친이 강원도 영월에서 사과재배를 시작하여 대물림 받은 것으로 2대째 사과농사 집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3년전 왜성사과 시범단지를 운

영하게 됐다. 동기가 된 것은 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 유림연수사 이태리와 프랑스의 과수원을 견학하면서부터다. 현재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박정화 소장과 함께 왜성사과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1ha당 2천주를 심어 45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15kg 3천상자다. 출하가격은 5kg당 4만원, 15kg은 12만원에 출하되고 있다. 과수원 1ha 조성비는 5천만원이다. 한번 과수원을 조성하면 20년까지는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맛이 변하기 때문에

품종을 개량해야 한다.

현재 이 조합장이 재배하는 사과의 품종은 아이들과 노인들이 좋아하는 홍로와 히로사키, 시나노 스위트, 후지, 선홍, 추향 등을 재배하고 있다.

사과재배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당도가 높을수록 열지 않는다는 점이다. 퇴비를 많이 하면 당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퇴비를 하는 것이 노하우다.

출하는 주로 농협하나로 마트에 한다. 이 조합장은 또 노동력을 분산하기 위해 출하시기를 조절한다. 올 추석이전에 사과출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 조합장은 사과에 농약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것을 노하우로 삼는다. 따라서 절대 사과껍질을 깎지 않고도 먹을 수 있도록 농약을 뿌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농약을 뿌려도 14일이 지나면 분해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는데 잔류되는 사과가 나오지 않는다.

지역의 기후에 맞도록 사과를 재배해온 이 조합장은 보다 나은 수확을 위해 각종 사과재배교육은 물론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과 연구에 나서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

韓電 포천지점, 고객사랑 캠페인 전개



한국전력 포천지점은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사랑 캠페인을 9~10월에 걸쳐 전개한다.

한국전력 포천지점(지점장 홍종광)은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사랑 캠페인을 9~10월에 걸쳐 전개한다.

이번 “고객사랑 캠페인”에서는, 소외고객 지원을 위한 ‘현장 순회 전기설비 무료점검 서비스’, 고객 전기설비 고장으로 정전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홈 서비스’, 독

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하여 생필품 전달 및 노후된 조명기구나 전선 등을 무상으로 교체해 드리는 ‘봉사기동대 일일봉사활동’ 등 다양한 고객봉사활동을 펼친다.

특히, 야간·휴일·명절 등 취약시기에 ‘고객소유 전기설비’의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경우에도 한전과 계약된 전기공사업체를 30분 이내에 긴급 출동시켜 신속하게 수리해주는 “한전 홈서비스”를 9월12일부터 시범 운영하게 되어 포천지역의 정전복구가 한층 신속하고 편리하게 되었다.

한편, 지난 8월말부터 영북면 운현리를 시작으로 활동하고 있는 ‘봉사기동대’는 각 이장님들이 추천하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을 방문하여 생필품(쌀 20kg) 전달 및 각종 노력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위로부터의 따뜻한 격려와 훈훈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한국전력 포천지점은 지속적인 고객사랑 캠페인 전개 및 고객편의 위주의 제도과 서비스 개선 등으로 고객의 만족과 포천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 - BC카드 제휴마케팅 협정 조인

지역경제활성화 및 상호 공동이익 도모



포천시·비씨카드 제휴마케팅 조인식이 지난 1일 포천시청 접견실에서 개최돼 지역경제활성화 및 상호 공동이익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시와 비씨카드(주)는 지난 1일 포천시청 접견실에서 제휴마케팅 협정을 위한 조인식을 갖고, 포천시와 BC카드사 간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 상호 브랜드가치 극대화를 위한 홍보 지원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상호 홍보지원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의 담정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BC카드사는 자사 홈페이지(www.bccard.com) “I Love 녹색관광” 코너에 포천시 배너광고 및 특산물 전용란을 신설하

고, 매일 천만 부에 달하는 카드 이용요금 고지서에 포천 관련 홍보자료를 게재하게 된다.

또 포천시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때 홍보물과 사은품을 지원하고, 포천지역 주요 숙박시설 및 유명음식점과 관광지에 대한 할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우편물과 인터넷 등을 통해 BC카드 회원들에게 각종 지역 축제와 특산물, 펜션, 체험관광 프로그램 등을 소개함으로써, 일체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율적이고 전국적인 대규모 홍보 및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 예로 오는 10월 열리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나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등과 같은 대규모 축제나 전국적인 행사 때 BC카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너 광고를 게재해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정의 기본정신에 따라 세부 시행사항이 결정되면 앞으로 BC카드 회원들은 “포천시·비씨카드 추천 할인·우대 가맹점” 이용 포천시 관광프로그램 할인 도농직거래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

도시 근교에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김성실 씨는 음식점을 해보기 위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만큼 사업은 되지 않고 부채만 자꾸 늘어나 1년만에 사업을 폐지하고 집도 팔려고 내 놓았다.

그런데 집을 팔게 되면 5천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미등기주택 및 고가주택은 제외)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지역에 소

재하는 주택의 경우는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인 것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때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인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③

지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는지 등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3년 이상 보유”라 함은 보유기간 중에 주택으로 사용된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절세방안

위 사례의 경우 김성실 씨는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므로 그 상태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

러므로 김성실 씨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위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

약 용도변경 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된 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인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의무사항 이행, 매수자의 음식점 개업 여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공부정리가 어렵다면 양도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나, 이 건의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다.

- 매매물건의 용도가 “주택”인 매매계약서
- 전기요금납부영수증(가정용)
- 납자가 찍힌 주택사진(내부 및 외부)
-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 기타 당해건물이 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LG 냉·난방 공조시스템

성실 시공 완벽한 마무리, 신속한 A/S



대표 박명복

“23년 동안 한결같이 냉·난방기만을 취급해 왔습니다.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관심과 과학, 경제의 발전으로 최첨단 냉·난방기가 속속 출시되면서 화려한 디자인, 다양한 기능에서 에너지 절약형까지 인류의 삶과 함께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업장에 일을 의뢰한 업체들에겐 ‘성실과 기술’을 주무기로 시공에서 마무리, A/S까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

었습니다.

박 대표의 일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맡은 일에 대해선 공기를 맞추기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마무리를 짓는 성격도 한몫을 하고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밤 열두시 안에 업무를 마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동창회나 친목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회원들이 바쁜 줄 알고 보채는 일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온 박 대표는 “현재는 냉·난방기 이전 설치, 수리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고민이다. 완벽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 구하기가 무척 힘이 든다”며 “물론 작업 공정이 까다롭고 힘들어서 만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직업이며 냉·난방기에 필요한 기술은 우리세대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덧 붙였다.

LG 냉·난방 공조시스템은 이 밖에도 중고에 어린, 중고 온풍기 등을 매일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곳에 이전이나 설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가스주입이나 A/S, 냉풍기 기 판매 등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해주고 있다.

최근 LG 냉·난방 공조시스템에서는 고유가

경제성, 안정성까지 겸비한 강력한 파워 자랑 쾌적한 실내분위기 연출 볼케노 전기온풍기

습니다.”

냉·난방 공조시스템(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1-7 대표: 박명복)은 귀뚜라미, 경동, 린나이 가스·기름 보일러와 유명브랜드 에어컨 등 냉·난방기 등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다. LG 냉·난방 공조시스템은 서울 천호동을 거점으로 8년 전 연고 하나 없는 포천에 정착해 독특한 기술력으로 입지를 다지며 명성을 얻고 있다.

이곳에서 박 대표는 ‘성실시공’을 본인의 철학으로 삼고 주어진 일에 완벽함을 더하면서 고객과 업체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한때 국내에 불어닥친 위헌위기는 박 대표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동안 성실하게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모두 날리고 위 곳에서 제2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박 대표는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만사에 성실하게 대처한 결과 지금은 업체들로부터 믿고 선호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 될 만큼 두터운 신뢰를 얻고

시대에 발맞춰 유류 온풍기보다 유지비가 저렴한 볼케노 전기온풍기를 선보이고 있다. 경제성, 안정성에 쾌적한 실내분위기까지 책임지는 이 시대 최고의 온풍기라고 자부하고 있다.

볼케노 전기 온풍기는 24시간 난방을 필요로 하며 연료소모량이 많은 곳, 잦은 연료주입으로 불편이 있는 곳, 유동인원이 많아 시설을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곳, 상주 인원이 많아 연소시 배기가스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산소결핍현상으로 환기를 자주시켜야 하는 곳, 중앙난방이 되어 있으나 별도의 보조 난방이 필요한 곳 등에 최적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쾌적난방, 안전난방, 경제난방, 간편 난방으로 건강까지 고려한 볼케노 원적외선 튜브터와 볼케노 벽걸이형 전기온풍기 등 실속 있는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031-541-0441, HP 017-238-7825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냉·난방 공조시스템은 귀뚜라미, 경동, 린나이 가스·기름 보일러와 유명브랜드 에어컨 등 냉·난방기 등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다.

산업안전사고 예방

수직사다리 용접 이음부 파단으로 인한 추락사고

OO산업 공장내부에서 전기집진기 상부에 덕트를 연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18m 높이에 설치된 수직사다리로 올라가던 중 수직사다리 용접 이음부 파단으로 인해 사다리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상황도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안전난간대 및 발판 등이 심하게 부식된 상태에서 크레인 작업 시 안전 난간에 사람이 걸려 수직사다리 등 용접부가 파손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입하여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으며, 전기집진기는 2년에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외면의 손상 및 변형과 사다리의 부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나 미실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

해서는 수직사다리 설치 시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고 진동이나 기타 부식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하는 옥외 사다리는 스텐레스 재질을 사용하여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설치하는 등 수직사다리의 안전성 확보해야 하며, 전기집진기는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로서 2년에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외면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유무의 점검 및 외부의 각종 철재 및 사다리의 부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